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6. 1. 27(화) 09:30 ~ 14:10	회의장소	진선미관 진관홀
참 석 자 (13명)	강보아(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백주현(간호대학 공동대표), 서하연(경영대학 공동대표), 신동희(교무처장), 오민서(학부 부총학생회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온(총무처장), 장현수(대학원 학생회장), 정예진(학부 총학생회장), 최정아(학생처장)		
불 참 자 (0명)			
안 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안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원안대로 승인		
내 용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1.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단일 안건과 관련하여 1월 23일 금요일에 학생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추가 설명 진행한 부분을 언급하며, 예산팀장에게 동일 내용의 안건 제안 설명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고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목표시간이라고 하지만 폐회시간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등록금 책정 안건은 모든 학생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전에는 폐회없이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회의 의사 진행에 대한 의견은 감사하나 진행 상황을 보고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판단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전반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질의응답 전 학생위원 측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학생위원들의 의사를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학교 측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 입장이나 의견을 먼저 발언한 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회의 개최 횟수와 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등록금은 대학의 재정 구조나 학생의 부담 등 교육환경 전반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므로 타 대학 사례를 들어 충분한 횟수와 시간을 갖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충분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위원장이 작년 구조 등심위에서 논의된 학생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일정임을 설명하며, 학교마다 다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제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함께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 개최가 이 회의에서 답변 불가한 이유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작년 구조 등심위를 포함하여 7차례 등심위를 개최했음을 언급하며, 금일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임을 답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모두 발언의 형식으로 의견을 구해서 발언한 것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금년 구조 등심위의 개최 여부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작년에 구조 관련 논의를 7월 구조 등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예년에는 주로 4월 결산 안건 논의 시 구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금 논의 진행이 어려우니 구조 등심위를 진행하자는 의견인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구조 등심위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진행하는 것은 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건으로, 예산팀장의 발언은 4월 결산안 등심위 진행 이후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 별도의 회의 일정을 정하자고 하여 진행된 부분임을 부연하며, 작년 논의사항을 올해 상당 부분 반영했음을 설명하다. 추후 회의를 통해 차년도 변경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차년도에 대한 의견을 결산 등심위 등 차기 회의에서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의 올해 진행 여부를 재차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형식은 추후에 협의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2026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경하였고 회의 자료 전달 방식이나 회차에 대해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의견을 주는 부분을 언급하며, 한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인지만 다른 회의에 별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산안 등심위까지 진행한 후에 의견을 제안하면 이후 반영할 수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결산안 등심위 이후 구조 등심위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논의는 즉답할 사항이 아니므로 차후에 방법을 같이 논의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언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재차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의견을 제공하면 검토 의견의 형태로 답할 수도 있고 관행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4월 결산 등심위에서 추가 논의시간을 가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다. 과거에는 등심위 회차가 많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등심위 회차 증가와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었으므로 달라진 상황에 맞는 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하다. - 위원장이 안전별 횡수,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은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금일 논의를 통해 금일 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일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전달 주면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구조 등심위 희망을 밝혔으므로 추가 논의 자리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장외에서도 학생위원들이 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무리 반대해도 가결될 수밖에 없는 등심위 구조를 학생들이 규탄하고 있으므로, 추후 먼저 연락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함에 동의하며, 협의 요청을 구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처에서 학생위원의 요청을 받아 공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는 진행하되 방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을 요청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1차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과거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요구안은 등심위에서 다루어질 안건이 아니라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학생 요구안과 예산과의 연관성이 큼에도 안건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학생 의견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하다. 교직원위원이 예산안과 등록금 책정안을 마련하여 학교 대표로서 논의하는 것처럼 학생위원은 만오천 이화인을 대표해서 학생 요구안을 수합함을 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다. 예산안에 학생 요구안이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촉박한 일정 속에 학생 요구안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된 부분을 취합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하다. 등심위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학생 요구안과 관련하여 학생처를 통해 학내 여러 부처가 소통하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해당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심도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체화되어 예산이 배정되어 실현된 사안들이 있음을 설명하다. 등심위보다 더 적절한 자리가 있음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제공된 학생 요구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계속적으로 해당 건은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을 들어 이를 논의하는 게 적합하지 않음을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 완료한 상황임을 안내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교직원위원들에게 제공한 학생 요구안을 기억하고 있는지 학교 측 위원 각자 한 가지씩 이야기해달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 시 학생 요구안 중 예산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고 등록금 심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을 언급하며, 학생 요구안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전부가 예산과 구조와 관련되었고 고질적 요구안임에도 요구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 같아 유감스러움을 표하다. - 교무처장이 작년 교무처에서 답변한 내용을 예로 들어 학생 요구안에 대해 각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기억나는 것을 발언해달라 요청한 것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이런 방식의 운영은 적절하지 않고 예산과 등록금에 관련된 특정 요구안들에 대해 발제하여 학교 측 답변을 요구하면 그 항목에 대해 과거 검토 결과와 학교 측 의견을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이 학교 측 위원들에게 묻는 것이 불가한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포괄적으로 상대방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한 특정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면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활용계획안에 대해 학생 요구안을 검토하였음에도 낮은 금액만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각 처에서 중요시하는 학생 요구안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른 교직원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금요일 학생위원들과 진행한 2차 등심위 사전 미팅에서 등록금 인상분 활용계획안 중 장학금과 교육·연구 환경 개선 외의 항목은 예산만 투입하면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 중 일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현황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며 구체화해 나갈 부분이라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부연하다. 또한 노후 환경 개선 역시 학생 요구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특히 자료에 제시된 노후 환경 개선 항목들의 소요예산 총액이 등록금 인상분 활용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근거로 등록금 외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나 기금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학교의 의지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의 입장은 동결임에 따라 활용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음을 발언하며, 예산안 편성 시 추가 논의 시간 마련을 답하였으므로 예산안에서 명확하게 학생 요구안이 반영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모든 부서의 예산을 답변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이 반영된 예산 편성 사례에 대해 설명을 재요청하다. -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학생 요구안에 대해 특정 해주면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이 적절하며, 학생 요구안을 검토했을 테니 그 중 하나에 대해 답변하라는 방식은 적합한 회의 질의 방식이 아님을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안을 검토하였을 때, 학생 요구안 관련된 내용이 없어 질의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요구안을 분석하여 각 처에 전달하였고, 거시적인 수치에 반영되어 있으나 개별 항목에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을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1차 등심위에서 관리처장이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냉난방과 노후화된 시설 투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조형예술대학과 신세계관 등을 개선했고 26년 예산에도 중앙도서관, 교육관 B동 2차 냉난방 개선 공사 등을 편성한 부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분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하고, 예산팀장이 2026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임을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관 B동이 대상이 되었으나 학생 요구안은 70년이 넘은 교육관 A동이었음을 언급하며, 투자 대상이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A동은 이미 교체하였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도 냉온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수기 내구연한에 맞춰 개선하고 있음을 답하다. 당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나 수리가 불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발언하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담당 선생님이 사전에 확인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학생 요구안과 상이하지만 노후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학생처장이 2028년 재교체 예정임을 이미 답변하였다고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중앙도서관 시설 개선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중앙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 예산은 규모가 상당하며 매년 단과대학 건물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서 공사가 여러 해 늦춰진 상황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공조기 소음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건물 관련하여 감가상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들어 대략적 이해는 하였으나 감가상각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매년 비등록금회계 감가상각비를 건축기금에 적립하고 개보수 및 재건축 공사에 활용함을 답하다. A 건물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A 건물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내 개보수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추가 질의를 요청하고,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관련해서 다음 등심위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안은 안건 상정 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등심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움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는 의결하지 않음을 들어 학생 요구안의 논의 가능성을 재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과거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 발의가 진행된 적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음을 설명하며, 학생처의 운영 사례를 들어 각 부서에서 실무자가 직접 답변 주는 게 더 적절함을 답변하다. 등심위에서의 발언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반영에 대해서는 다른 창구가 더 효과적임을 부연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생처장이 매 학기 실무협의회와 총장간담회도 학생 요구안을 논의하는 장임을 언급하며, 학생 요구안 논의처가 다양하고 공문으로 서면 답변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등심위가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을 마련하는 자리이고 연초 예산 의결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학생 요구안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다. 학생 요구안이 기존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종전 논의 결과가 금번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음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가 개선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호흡의 흐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다. 전임교원 채용 사례를 들어 전임교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만 예산적 제약과 함께 우수교원 채용 자체의 난점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작년 답변 이후 예산안 반영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이의 사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특정하여 질문하는 것보다 이 중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더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합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보수와 관련하여 기금인출 편성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재원 확보 후 투자 발생 필요성을 부연하다. - 교무처장이 우수 교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올해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답하며, 지속적으로 잔여석에 대해 추가 반영할 것임을 부연하다. 추가 인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교원 채용과 연구 강화에 이미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우수 교원 확충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배정을 하고 이로 인한 등록금 추가 필요에 대한 맥락도 이해하고 있지만, 요청한 2024년과 2025년 소속별 교원 현황 자료 비교 시 변동이 크지 않음을 발언하다. 퇴임 교원이 많고 학과 대표들과의 만남 시 전임교원 부족이 모든 학과의 공통사항임을 들어 조형예술대학과 인문대학, 음악대학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학교의 충원 계획을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발언하다. - 교무처장이 2025년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설명하며, 증원된 인원은 2026년 통계부터 반영됨을 부연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위원장이 학교의 의사결정이 예산에 반영되고 결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최소한 1년, 길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최종적 계약 인원은 적어진 사례를 들어 실제 충원 인원을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충원 규모를 설명하며 학과의 요구에 따라 충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교원 충원 비율이 유사한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최근 10년간 국가사업에 따른 학과 신설 추이와 우리 대학의 강점 학과를 설명하며, 이공계열이 최근 증가세로 보이지만 전체 비율을 보면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함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음악대학의 경우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조형예술대학과 음악대학 교원 충원 중이고 예산 확보 어려움을 설명하며 계속 충원 예정임을 답하다. 음악대학은 강좌 운영상 실기가 다수로 100% 전임교원 충원 운영 사례가 희박함을 설명하고 충원 계획에 따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을 부연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전임교원이 부족하나 교원 채용이 불발되고 지속적으로 충원되지 않는 사유는 학생에게 고지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단대별 현황을 학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다. - 학생처장이 학과의 요구로 인해 불발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발되는 사례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음을 설명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교원 확보에 사용된 부분이 등록금 인상분을 통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분은 대규모 냉난방 환경 개선에 사용되었음을 답하고, 교원 충원은 전체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가능했다고 부연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는 특성상 특정 수입에 대해 특정 지출을 하는 구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조는 아님을 설명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 및 학생 지원과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수입 증대가 필요함을 부연하다. 교원 총원은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투자를 위한 적절한 재원을 발굴하고 확보하고자 노력 중임을 답변하다. 이어 추가 질의응답을 요청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1차 회의에서는 표결 거부에도 모든 안건 의결이 진행되었음을 들어, 부속병원회계나 잉여금 처리 원칙은 심의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다. 교비회계 심의 미완료임에도 폐회 시간을 논하여 강행된 사례를 들어 금번 회의에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학생위원의 발언에 적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달라 요청하고, 본관 및 정문 기자회견 후 학생위원이 부착한 성명문과 피켓이 제거된 부분을 들어 기자회견문 낭독 기회를 요청하다. 학생들이 이해하기로 적립금이 있음에도 기금 미사용은 부적절하며 학생들을 ATM기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짐을 발언하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학생들의 부담감이 증대된 부분과 재정적 한계 상황임을 주장하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이미 전국 상위권이며, 등록금 인상 강행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발언하다.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가 가능함에도 학생의 인상분으로 장학금 20억 원을 지원하고 15.9억 원 증대를 위해 두 배의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보이며, 학생을 지원하고자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 상황임을 언급하다. 15.9억 원을 기금 인출이나 기부금 모금, 법인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길 희망하며, 등록금 인상 반대는 학생 요구안 1위임을 강조하다. 예산팀과 사전 미팅에서도 학생들을 재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여,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하다. 학생들의 고향 위에 쓰는 새 시대 새 이화라면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의견을 살펴보았음을 답하고 안전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다. 예산이나 등록금 책정에 대해 추가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입장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입장 차이뿐 아니라 학생위원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교직원위원에게 학생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들의 입장을 학교가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문의하다.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해가 단지 입장 차이로만 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 요구안과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학생 요구안에서 예산이 필요한 요구안과 필요하지 않은 요구안이 있는 상황으로 등심위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요구안만 해당하는 형태임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요구안을 반영하고 싶다는 것인지 의도를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길 희망하고, 학생 요구안 1위는 등록금 인상 반대임을 들어,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에 대한 관점 차이가 명확해 보여 학생들의 등록금 관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해 주기를 교직원위원들에게 간곡히 바라는 입장임을 답하다. - 위원장이 교직원위원들이 동일한 심정임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게 신뢰의 붕괴나 대립적 관계를 가지려는 것은 아님을 발언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의 동결에 대한 주장도 이해가 되고 인상안에 대한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으나, 신뢰의 관계를 깨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아님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35.9억 원을 선택하고 20억 원 장학금을 포기하는 게 적절한지와 인상안에 대한 안전 통보 형식임을 들어 그런 결정이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의사결정에는 학생위원이 언급하는 신뢰 문제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발언이며 말 그대로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금일 등록금 인상한 가결 시 학생들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은 명확하며, 모두 대표자로서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신뢰 문제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를 재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금액에 대한 납득도 불가하며 작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인상 진행되었고 인상분 활용계획에 대한 신뢰도 미미한데 학생들과의 입장 차라고 하여 의결이 강행되면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부분임을 주장하다. 학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 회복이라고 보아 학생 대표자의 입장에서 15.9억 원이 학생들에게 징수해야 할 금액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신뢰의 차원까지 고려하기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금요일 학생위원들과의 사전 미팅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입장이 다르다고 말한 배경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임을 설명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은 민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 수입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재정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초·중·고 교육과 크게 다른 부분임을 설명하며 아울러 국공립대학은 인건비 등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부연하다. 십수년 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사립대학 임금도 오랜 기간 동결되어 학내 구성원이 인내하는 상황 속 높은 수준의 물가 인상에 따라 학내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발언하다. 물가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지출 항목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해도 지출해야 하는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임을 설명하다. 주변 대학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게 하려면 재정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함을 설명하다. 등록금 수입 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가장 큰 부분 등록금 수입이므로 이로 충당해야 하는 지출 규모 예산이 크고 이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소비자 인상률임을 부연하다. 우리 대학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등록금 수입 2.95%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였을 때 사용할 재원은 고려하였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장기적인 대학의 발전에서 등록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속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임을 설명하며,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재정투자 없이는 학교 발전이 어렵고 타 대학보다 적게 투자할 시 도태되는 구조가 발생함을 발언하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 인상을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형국임을 설명하다.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타 대학도 등록금을 인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을 부연하다. 학교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발전 방향과 다른 학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 등이 수반되므로 학교의 입장도 고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려하기를 요청한 부분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이 기업인지 질의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근본적으로 동결 가능성 가정 여부와 등심 위의 심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 이미 답이 정해진 안건을 상정한 거라면 논의 진행 자체에 의문을 표하며, 동결을 가정했을 때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다. - 교무처장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지표들을 들어 이런 상황에도 등록금만 동결해야 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한국장학재단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학교의 노력으로 동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원으로 동결했던 것임을 답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에 국가 지원금을 추가해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등록금 동결한 상태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황임을 답하다.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학생 실납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학교의 등록금은 2008년보다 감소한 상태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지해왔던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국가장학금 증대로 학교가 재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가장학금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가장학금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학교를 통해 지급되는 부분임을 설명하고, 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학생 납부분에 해당하며 다른 부분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반값등록금 논의 추진 시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어차피 대학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금 역시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학교에서 이화복지장학금으로 보전하고 있음을 발언하다. 등록금 동결 사유로는 등록금은 라면처럼 다른 물품과 다름을 들어 교육기관이고 학생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며 타 물가 상승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교무처장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사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아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도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학원비 상승률도 증가하고 있음을 예시로 설명하다. 세금과 건축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비 역시 16~17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한 부분을 부연하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동결했을 때 등록금 순위가 낮다면 공감하겠지만 등록금이 이미 높기 때문에 더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평균등록금이 높은 타 대학 사례를 들어, 교비회계 상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은 대학도 작년 5%대 인상을 하고 금년도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립대학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다는 방증임을 설명하다. 우리 대학 건립 이념상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이화의 정신을 들어 다양한 단과대학과 전공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운영되어 평균등록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부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2008년 등록금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17년 간의 동결은 국가 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정부의 역제책을 통한 상황이었음을 부연하며, 세계적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해야 하는 시기에 투자가 감소하여 퇴보되고 재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설명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17년간 해당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임을 답하다. 우리 대학과 유사한 타 대학의 재정 상황을 보면 체험하는 여러 환경적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발언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못해 노후화되고 악화된 교육연구환경이 심각하고 물가까지 인상되니 한계에 달한 점을 부연하다. 그동안 동결 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인 사유를 묻는다면 난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더 이상은 지속이 불가하기 때문임을 설명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17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임계점에 달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임을 주장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교무처장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국가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며 지원했던 사업이 지역 대학이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서울 사립대학은 이에 취약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측됨을 답변하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인 상황임을 부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에서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한해 인건비 상향 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수혜금액과 인센티브 금액을 설명하며 이 중에서 25%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고 이 한도를 5% 증액해준다는 의미임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동결 시 총액 증액이 아니라 총액은 변동없이 인건비로 사용하는 재량권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75%를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상황이라 총액 5%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답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혁신 성과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인상분을 인센티브로 충당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총예산을 감액하여 지역 대학 활성화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답하다. 인센티브 수혜 시 기존 운영 중인 사업이나 혁신 사업 목적에 맞는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에 투자할 예정임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충당 가능하다면 인상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 예산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수입은 최소한으로 잡고 이에 맞춰 지출예산을 균형예산의 형태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이후 증액분에 대해 해당 사업의 지출분으로 동일하게 편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전반적으로 학교 재정 상황과 투자 필요성을 토대로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안내함을 답하다. 등록금 미인상 시 불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답변이 어렵고 반대로 예산적 측면에서 추가 발생분에 대한 사용처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들은 동결 주장임을 발언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위원장이 기존의 학생 요구안을 토대로 시설 투자 등 다양한 용처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설명하며 추가로 투자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음도 가정하여 상정된 안건인지 질의하다. 등록금 책정안 논의 시 등록금 인상을 가결하고자 심의하는 것인지 등록금 동결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재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안 필요성과 학교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임을 답하고 학생위원들 역시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타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들어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안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동결안을 고려하고 있는지와 다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심의과정이 맞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학교 차원에서도 등록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동결도 고려하여 똑같이 다양한 의견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정리한 결과임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95%의 책정 근거가 부족하며, 물가상승률과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만 주장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법정 상한 3.19%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인상안임을 답하다.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금보존기금을 인출하는 상황에 따라 학교 재정 위기 상황임을 부연하다.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까지 인출해가며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수입이 우리 대학의 주된 자원인데 물가 인상 시에는 지출이 확대되어 등록금 수입 외 2,000억대의 자원 마련 방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부분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여러 자원 마련을 위한 노력은 이해하고 있으나, 2.95% 산정의 근거를 재질의하다. - 위원장이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 측면만을 고려하면 5%, 10%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였겠지만 법적 제도 안에서 운영이 필수적임에 따라 법적 상한선 결정에 따라 범위 내 인상을 진행함을 설명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2025년 7차 등심위 과정에서 법적 상한선 제시보다 기술적 계산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방안을 희망하여 법적 상한선 근거 계산 자료에 의거하여 상한선에 가까운 선이지만 2.95% 수치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부연하다. 법적 테두리 내 상한선을 설정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질의하다. 시혜적으로 발언하였으나 법적 상한선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하였다는 발언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2.95%의 근거를 문의하다. - 예산팀장이 2.95%가 평균등록금 계산법에 의해 우리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상한 수준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법적인 제한 조건이 전혀 없고 대학의 재정적 상황만 고려할 경우 더 높은 인상 수치가 요구되나 그렇게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법적인 제한 요건은 학부모 부담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재정적 관점에서는 5%, 10% 인상도 희망하지만 법적 제한이 있어 상한선만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부담을 고려한 수치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법적으로 물가 상승의 1.5배에서 1.2배로 된 부분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해진 부분이라 이를 준수하여 반영한 것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가의 규제를 학교가 따른 것이라 시혜적으로 부담을 고려했다고 발언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다양한 재정 확충 사업을 진행하는데 등록금 인상은 재정 확충 사업으로 충당이 불가한 비용이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쉬운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이 가장 쉬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은 결단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발언하며, 등심위에서 우리 대학의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수차례 말씀드려왔으며, 등록금 인상이라는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재차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결 기간 동안 학교의 노력을 질의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에 대해 나약한 학생 위치를 토대로 등록금 인상 결정을 하는 게 아닌지 발언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 이외에 다른 재원 마련보다 등록금 인상이 선행되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님을 답하며, 등록금 인상에 대해 타 대학도 여러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 동결하였으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기본 재원이고 등록금을 기본으로 하는 요소들이 많아 등록금 인상을 할 경우 기부금이나 장학금 사례 등을 들어 연동되어 증대되는 순수입 효과에 대해 설명하다.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유치는 가능하나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 시설 관리 등은 등록금을 기본으로 이루어짐을 답하며 학교의 규모 증가가 있어야 사업비 수주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부연하다. 동결 기간 동안 재원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결국 투자재원 부족은 교원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제에 의한 한계가 우리 대학과 산업의 국가경쟁력 장애 요소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학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진 측면임을 발언하다. 등록금 인상이 제일 쉬운 방안이거나 등심위에서 학생 위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다. 등심위를 통해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과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의 발전적인 측면을 도모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만 지속되고 있으므로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라는 안건을 들어 원점으로 돌아가 동결안부터 차근차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법적 상한이 없다면 5%, 10% 인상을 희망한다는 것은 법적 상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가 있음을 들어 이를 감수해서라도 인상을 희망한다는 것인지 의도를 질의하다.

- 위원장이 순전히 재정적 관점에서는 현 상한선보다 인상하는 것이 사립대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고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통해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상한선의 사회적 취지를 이해하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의미임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우리 대학의 기금 현황표 상 기금잔액이 1,155억 원 감소하였음을 언급하며, 매년 기부금 수입과 이자수익도 기금에 적립되었음에도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불구하고 1,155억 원의 기금잔액 감소가 발생했다는 점은 등록금 동결 기간 동안 수천억 원대의 기금을 활용한 투자가 있었다는 것임을 설명하며 대학의 재정 노력에 대한 감안이 필요함을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우리 대학도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원교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 협의회가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들어 정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학교의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정정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50%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동의한 상황으로 동결을 생각한 대학이 적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에 우리 대학도 동참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이에 동참한다면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과 위배되는 게 아닌지 입장을 확인하다.

- 교무처장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예측하여 답하기는 어렵고 우리 대학은 법적인 제도를 준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답하며, 발언한 바에 대해 파악한 바 없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의 희망이 법적 상한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분들이 학생 부담을 줄이고 대학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해주셨듯이 대학에서도 업무 관련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의 재정적 지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요청을 진행하고 있음을 답하다. 다양한 방안으로 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는 이야기해왔던 부분임을 설명하며, 유관 부서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항의성 차원으로 예측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발언하다.

- 위원장이 다른 질문이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동결안부터 차근차근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기획처의 입장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위원들도 학교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거나 퇴보되길 원하진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언하다. 졸업 후에도 좋은 학교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후배 양성의 차원에서도 동의할 것임을 언급하며, 비용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기획의 문제로 물가 인상분에 대해 용역이나 시설 운영을 사례로 들어 등록금 동결 시에는 용역비와 자재비, 비품비 인상과 같이 모든 외부 비용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들이 상승하지만 기존 재원을 물가 상승에 사용함에 따라 발전을 위해 사용할 비용을 감액하는 형태임을 설명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등록금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함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공공재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임을 들어 이 또한 증가 추세임을 부연하다. 소득 증가율이 연 평균 3.3%지만 지난 5년 간 연평균 9.3%가 인상된 부분을 덧붙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겠지만 국가 예산은 공공재를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상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국가의 사용을 불신할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의 차원으로 보이며, 학교가 정채하지 않고 기존 재원만 소비하지 않으며 타 대학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발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외부의 물가는 상승하고 세금도 인상하는 상황에서 퇴보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순위가 2순위임을 고려하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학과나 교수, 직원 구조가 다른 부분으로 특정 학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대학이라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능하지만 우리 대학의 전통이나 강점을 고려하여 책정된 부분으로, 이를 동의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반되는 측면임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상승률 반영해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적립금을 미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17년 간 생긴 학교의 재정난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지 않을 때 재원을 외부로 내보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을 답하고 재정난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가진 재원을 소비할 것인지 발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임을 설명하다. 기존의 재원을 지출하고 외부의 비용 증가로 인해 재원이 줄어도 된다면 동결이 맞지만, 이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형태로 재정난을 전가하는 부분이 아님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임을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기저효과를 계산한 상황이 아니며 2008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30% 이상 상승하였고, 재정은 지속가능해야 하므로 대학의 재정난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시 현행 유지의 상황이고 이보다 더 인상할 경우에 여지가 생겨 후배들의 재정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을 부연하다. 예전 등심위에서 학생위원이 한 발언을 예로 들어 과거 동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상분이 감소했을 것임을 언급하며 동결 시 추후 특정 후배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함을 발언하다. 십수년 간의 물가상승률이 있었음에도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인상을 막아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다. 현재 인상 비율이 한 번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는 아닌 걸로 보이며, 현행 물가 수준에서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한 수치로 인식됨을 언급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현재 학생들은 4년만 등록금을 내는 상황인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임도 고려해야 함을 발언하다. 금년이 국가 장학금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결이 유지되면 전가되는 측면에 대한 설명임을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개개의 사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물가와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각 직장의 소득도 물가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 시에는 재정적 효과 차원에서 소득이 상승하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우리 대학은 손해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다. 통계적으로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제안한 관점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일 것이라고 발언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재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발전해 가야 할 존재인 현 학생들이 인상을 부담하지 않으면 후배들에게 전가되지 않느냐는 측면은 학생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서 학교 측 발언들이 상충되고 있음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누군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상황이 아님을 발언하며, 추가 발언이나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금번 동결 시 이후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이나 등록금 상한선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차년에는 복리로 더욱 인상되는 부분을 언급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학교의 적립금이 엄청난 규모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거 선배들이 적립한 적립금임을 고려하면 적립금을 계속 인출해갈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형태임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금번 인상 후 추후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년도에 규제 완화로 인한 추가 인상의 가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능성을 고려하면 낮은 % 제시하여도 부담감은 크기 때문에 금년 한 번이라도 인상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타 대학 사례에 대해 결과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타 대학의 인상을 우리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은 아니며, 지금 우리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방향이 지나치게 자본의 논리만 적용되어 학생 소외 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음을 발언하다.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학생과의 신뢰 측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다.

- 위원장이 발언하지 않은 위원들 중심으로 전반적 의견 제시를 제안하다.

- 교무처장이 적립금은 사용가능한 기금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가능한 기금은 계속 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원을 감축하고 관련 인원을 증원할만큼 총장님과 대외협력처장님이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발언하다. 추가로 우리 학교의 대외평가 지표 상승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 중이며, 다양한 지표에서 도약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관련 투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임을 부연하다. 물가상승률의 인상도 매우 소중한 상황임을 발언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생 요구안에 대한 예산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 보완이 필요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추후 등록금 관련된 후속 협의회나 정기 협의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학생 요구안에 대한 예산 설명 예시안은 최고 상한선이 아니라 최소선임을 언급하며,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료임을 답하다. 작년에도 학생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경안에 보고하였음을 부연하다. 우리 학교 체제상 학생 요구안은 협의회를 통해 추경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 요구 의견에 대해 향후 반영할 것임을 답변하다. 논의된 의견은 모두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발전과 졸업생으로서의 장기적인 미래의 측면도 고려하여 새 시대 새 이화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발언하다.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의 논의는 기본적인 인상 필요성과 인상에 대해 동의가 불가하여 동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이기 때문에 정량적 논의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한 부분임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도 금액에 대한 제안은 없었고 학교 측에서도 구체적 제안은 추후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여 비슷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되어 각각의 취지나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아니더라도 최소 이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나 등심위 운영, 학생 요구안 반영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의결 진행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동결안부터 교직원위원회와 논의를 제안한 부분으로 동결만 주장하여 시간이 지연되니 인상 수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없음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상당 시간 동안 진행된 논의를 보면 인상의 당위성, 제안한 안에 대한 설명과 동결에 대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임을 설명하다. 향후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의견 제안을 요청하며, 의사 진행 또는 의견 개진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속행이 아니라 강행으로 여겨지며, 반대하여도 가결이 되는 구조로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고 동결안부터 재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동결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 설명은 충분해 보이나, 동결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다면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구조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등록금 책정 회의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학생위원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다. 상호 질문을 통해 논의를 가져야 하는데 현행 진행 방식은 학생위원들에 대한 무시로 여겨진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논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책정안에 대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관리처장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불가상승률이 있는데 전구 교체나 인건비만 고려하여도 부득이한 상황임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정에 따른 좋은 파장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등록금 인상 시 학생과 학교의 관계가 악화될 것임을 우려하며, 만오천 학우를 대표하여 나온 부분이므로 등록금 인상안이 가결된다면 학생과의 신뢰가 파괴된 140주년이 될 수 있음을 들어 학생들 관점도 반드시 반영하여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다.

- 학생처장이 현 회의 석상의 논의 내용을 실시간 외부로 공개하는 것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며 주의를 요청하다. 회의 석상의 발언이 외부로 인용된다면 논의 진행이 어려움을 거듭 당부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의 시각과 인상 시 발생하는 신뢰의 문제 두 가지를 언급하며, 전자에 대한 오해 부분을 지적하고 학부모와 학생 부담 고려 없이 가능한 한 인상을 희망한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발언을 외부로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다. 순전히 재정적 관점에서는 누적된 요소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부담분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법적 상한 하로 진행하는 부분임을 발언하다.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상 수치는 훨씬 더 심도 있는 내부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회적 결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다. 동결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신뢰의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분들의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재차 구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구조가 폭력적이며, 이해와 공감의 표현이 폭력적임을 강조하다. 장외에서 외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침묵하여도 가결되기 때문에 속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으로 침묵하지 않기를 요청하다. - 교무처장이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학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인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이 불가하므로 학교 협조가 불가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임을 답변하다. 학교가 등록금과 관련하여 등심위 외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서약서에 서명하고 유출하고 싶지 않음에도 학생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함을 설명하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그 외 소통을 위한 노력 유무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의하다. - 교무처장이 학교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모순적임을 지적하며, 등록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데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려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구성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왜곡하는 측면에 대해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고려하여야 하는데 작년에도 강행된 등록금 인상과 체감되지 못한 부분, 총장님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학생 대표자로서 학교와 반목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음을 발언하다. - 교무처장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였고 부정한 목적으로 유용하겠다는 게 아님에도 학교 본부와 교직원위원을 추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등심위 개최에 대해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등 학교 행정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됨에 따라 타 대학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전 조율을 진행함을 언급하며 소외감을 느꼈다면 대표하여 사과를 전하고 금년에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발언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측면임을 고려하지만 가계 부채 등 개별 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활용계획안이 더 많은 양으로 마련되어야 협의가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발언하다. - 위원장이 추후 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가능하며, 등심위 회의에서도 활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발언을 진행할 수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와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입장임을 강조하며, 어느 지점부터 신뢰가 상실하였는지 고려하면 등록금 의제를 다루는 학교의 방식임을 지적하다.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동결안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진행하였고 상호 취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 시 학생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와 발전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타 대학과 달리 사전 조율의 과정이 없음을 들어 학생 요청이나 자료 유출, 설문조사가 없이는 소통이 어려운 구조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현 회의 석상의 논의 내용을 실시간 외부로 공개하는 것과 위원 발언을 오해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형태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표하다. 학생위원들이 여러 차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위원회 회의 중 일부 발언이 자극적인 형태로 실시간 외부에 공개된 점은 매우 유감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태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다. 위원이자 대학 재정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우리 대학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1년 내내 다양한 자리에서 마주할 상황임에도 회의 중간에 발언이 맥락과 배경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SNS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 학생위원들의 답변을 요청하다. 회의 중 일부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형태로 실시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는 위원회 내 위원 간 자유롭고 진솔한 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였다. 학생위원들이 우리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노후화된 환경 개선 또한 학생 요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며, 등록금 인상분은 학교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학생을 위한 투자임을 설명하다. 학생들의 부담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 기회를 모든 위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으나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강요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발언하다. 인상에 대한 여러 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인상분 활용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인상분이나 예산안 책정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 등은 해마다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확대된 작년 상황을 들어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반영을 노력하였음을 설명하다. 오늘 회의 이후에도 의견 논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며, 대학마다 등심위 운영 방식은 다양하므로 우리 대학은 학생 요구안을 등록금 이외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예산에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을 반영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학생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상분에 대한 학생 요구안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인상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업비 수주나 증액 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학생 요구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작년 증액분에 대해서 학생 요구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설명하다. 제도 개선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인상에 대해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발언하다. 구체적 사례가 아니어도 부족한 부분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보인 태도 외에도 학생 대표자와 학교 간 불화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여러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공식적인 문서로는 학생위원이 송부한 설문조사 결과가 체감에 대해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을 설명하다. 앞으로의 논의과정도 동일하지만 본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회의 안건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속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등록금 책정 시 학교 차원에서의 인식 조사나 인상 결정 후 공지를 비롯하여 안내 방식의 개선 계획에 대해 문의하다. 등록금 책정안을 금일 의결할 것으로 결정하고 시작한 회의인데 본 회의 진행사항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출을 통한 방식뿐임을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을 전하다.

- 예산팀장이 등심위 회의 관련 자료는 회의록 공개 시까지 대외비가 원칙이나, 그동안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학생위원들이 SNS에 공개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이해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아 왔음을 언급하며,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의 현장 발언을 일부만 발췌하여 속보라는 타이틀로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수 있도록 SNS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임을 부연하다. 우리 대학은 십수년에 걸친 등심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고 타 대학들에 비해 상세하게 기술하는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논의 내용을 발언자 의도와 달리 오해할 수 있게 게시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다. 회의 중인 위원 발언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SNS에 게시된 것인지,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적 상한선이 없으면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으며, 카드 뉴스에 대해 본인이 작업한 부분이 아님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발언은 취지가 있고 취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하였음에도 발언을 왜곡하여 제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임을 발언하다. 향후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발언의 취지를 반영하여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정정하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내용에 대한 정정도 중요하나 등심위 회의 중 속보의 형태로 자료가 게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들어 대단히 유감임을 표하다. 본인 발언이 실시간으로 왜곡되어 SNS에 게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위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지, 결국 위원 발언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면 전자기기를 반납한 형태로 회의 진행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구하다.

- 교무처장이 보안 유지사항에 명백하게 회의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모든 문서, 발표,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 공개 이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회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고 모든 위원들이 서명한 부분임을 언급하다.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총학생회장이 속보를 차치하고 이 방법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회의 자료도 보안 유지 대상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위원들의 회의 준비를 위해 불가피했음을 감안하여 문제제기하지 않았음을 재차 언급하고, 1차 회의 직후 학보 측의 사실관계 확인 문의로 있었는데 보안 서약에 따라 회의록 게시 전 공개가 불가함을 답변하였음에도 기사화된 부분도 함께 발언하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나 금일 회의 진행 중 위원 발언을 오해를 야기할 수 있게 SNS 게시한 것은 회의 진행상 적절하지 않음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따라 학우분들에게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유출이라는 표현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오해하도록 유도한 측면은 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을 하는 취지는 발언을 끊어 표현하면 의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발언이 앞뒤 맥락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검토 후 회의록 날인을 진행함을 설명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사전이나 사후든 진행할 수 있으나 회의 내용이 회의록에 반영되기 전 상호 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문구를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적절함을 언급하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유념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의결 여부를 보고하는 것도 부적절한지 의견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회의록 공개 전이지만, 학우들에게 안건 결과를 공유하는 측면까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아님을 답하다. 그럼에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발언 정정이 어렵고 상호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과 상관없이 사실에 대한 고지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근거를 들어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검토 작업을 통해 확정된 상태에서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부연하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전체 대화 안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내용을 유출하는 것에 대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	-----	-----

	해서는 자제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우리 대학은 위원회 발언에 대한 외부 공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지를 이해하여 특정 개인의 발언을 사실로 공개하는 것은 왜곡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를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내용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함에 따라 회의록이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기를 요청하며 학생 참관도 희망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1차 회의록 확인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담는 형태로 작업했음을 설명하고, 추가 요청 시 보완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참관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구하다. - 위원장이 금일 안건이 아니므로 취지는 충분히 청취하였고 논의는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하다. 위원장으로서 다소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음을 발언하다. 반복적 의견만 계속 되므로 의결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95% 인상안에 반대하며, 구조를 이용한 강행이 아닌지 납득하기 어려움을 발언하고, 위원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첨예한 입장차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인상 제안 외 다른 부분이 없지 않은지 의견을 확인하다. - 위원장이 동결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주셨고 별도 질문이 없으므로 설명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하며, 인상안이 상정된 상황이고 동결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임을 설명하다. 절충안이 있다면 논의를 계속하여 합의점을 모색하겠지만 완전히 상충된 두 개의 안이 있으므로 의결기관임의 성격을 들어 의결하는 것이 적합해보임을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제대로 된 의결기관이 맞는지와 위원장으로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지 주장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기존 등록금 책정안 기준도 확인할 수 없는 을의 입장임을 들어 등록금 책정 기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지금 의결을 논의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주장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가 논의의 장이 되려면 인상안이 적합하지 않으며, 책정안이면 %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의결 진행 의사를 확인하다. - 위원장이 심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계속 구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교직원위원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각각의 주장은 논리 구조상 명백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적으며,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데 부족한 지점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다. 질문은 더 이상 없는 상황으로 여겨져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질문이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만 약 없다면 찬성과 반대의견을 구하겠다는 것임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학생위원은 동등한 구조가 아닌데 의결기관을 논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 시설보수에 다수 편성된 국가장학금 보전 외 금액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시설 보수는 정말 중요하다고 답변하며, 에어컨이 작동하고 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를 만큼 노후화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다. 전력공급장치를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냉난방 공사는 예산 배정을 한 상태이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모든 단대에 일시 투자하기 어려워 학생들 간 체감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시설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도 증대되고 있어 건축기금 인출 계획도 예산안에 포함됨을 부연하다. 위원회는 의결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이후 후속 협의체에서도 학생 요구안은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만 논하는 부분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금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인상분 중 장학금 외 규모에 대해 기금 인출로 진행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회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6 예산은 원금보존기금까지 인출하는 편성안이며, 등록금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우리 대학 재정에 큰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140주년 기념으로 1,400억 원 기금 모금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해당 금액 보전이 불가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총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대학이 기부금 모금에 매진하고 있음을 답하다. 2025학년도 중 이뤄낸 성과 수준으로 2026 기부금 수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새 시대 새 이화 기금을 모두 인출하고, 그 외 원금보존기금까지 인출해서 사용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부족한 금액을 인상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면 추후 반환할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분만이 필요해서 등록금 인상률이 정해진 것이 아닌, 그 이상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인상을 통해 확대된 등록금 수입으로 가계곤란 학생들을 위한 이화복지 장학금과 부족한 환경개선 투자 등이 이루어질 것임을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단과대학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텐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와 어떤 항목인지 책정 근거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계열별 등록금 차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인 사전 열람 자료로 답변하였고, 작년에도 협의체 답변, 서면질의 등에 대한 답변 등 여러 차례 답변하였음을 답하다. 1980년대 문교부 승인에 따라 계열별 구분이 발생하였고 이후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 외 계열 간 등록금 차이가 유지되었음을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과 신설 시 책정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측면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다면 원가 계산이 중요한 측면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환원율이 두 배가 넘고 총예산 중 등록금 비중이 50%인 상황이며,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불가한 상황으로 교육원가에 근거한 등록금 재산정은 실익이 없으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한 추가 등록금 납부가 없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총장간담회 발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상황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의 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한 상태로 등록금 차이에 대한 기준을 학교는 설명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 집행내역은 공시되어 있고 사전 미팅에서도 설명하였음을 답하며, 교육활동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조차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부연하였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책정 기준은 과거 문교부 지침에 따라 설정되었고 현재는 근거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으나, 오랜 시간 동안 동결이 유지됨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적었음을 설명하다.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등록금 환원율이 235%에 달함을 부연하며 현재 등록금 차에 대해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중 2위가 단대별 차등등록금 공개에 대한 요구임을 들어 관행적 처리 대상이 아님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여러 차례 답변하였음을 답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열별 등록금이 산정되어 인상률만 반영되는 상태임을 들어 신설학과에 대해서만 별도 책정이 진행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이 학과별로 기준이 생겨 조정될 여지는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우리 대학 평균등록금이 높은 수준임은 맞지만 공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 대비 높지 않은 수준임을 설명하고, 첨단학과 개설 시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타교 사례를 예시로 들어 우리 대학이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 시 유사 계열 금액을 고려하여 일부 학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크게 하는 책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을 요청하고,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987년 지침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40년 전 지침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고, 위원장이 타 대학과의 공유 내용을 부연하며 해당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답변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을 전체 재책정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위원장이 등록금은 원가주의를 택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물로 유지해 왔음을 설명하며, 우리 대학만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연하다. 해당 논의를 본 등심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관할이 아니어서 유관부서 답변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수없이 들어왔음을 들어 어디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해당 내용도 등심위 자리에서 처음 인지하였음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이번에 제공한 사전 열람 자료에 기술되어 있음을 답하고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맥락은 설명되지 않았음을 반론하자 예산팀장이 해당 내용도 기술되어 있음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개선 의결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제안된 안건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게 적합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폐회 시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단대별 차등 책정 기준이 안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한국사회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는데 새 시대 새 이화의 슬로건에 맞게 금번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지 질의하다. 2025년 7차 등심위 장내 발언처럼 국회에서 사립대 지원의 부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언급하며, 학교 측의 노력에 대해 문의하다. - 위원장이 학교 차원에서도 수도권 사립대학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가 정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교무처장이 모든 부서에서 협의회를 통해 개선 요구를 하고 교육부 관계자를 모셔 요구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음을 답하다.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유사한 대학끼리 연계를 통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금년 계획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이 본 등심위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우리 대학의 전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답하며, 재정적 관점에서 대학의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다.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가 법인에게 어떤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과 관련된 자료는 사전 열람 자료로 답변드린 부분이고 금요일 회의를 비롯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두 개의 제시안에 대해 가부를 선택하는 판단과 관련된 질문이 아님을 발언하고,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 입장에서는 관련성이 큰 부분임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한 논의 논리 구조가 반복된다면 회의 진행자로서 의결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가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 전체가 반대하여 이 안전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며 의결을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다. 비민주적인 등심위 운영에 대한 측면을 개선하고 싶을 것으로 보여 빠른 의결 진행이 아닌 추가 논의를 통한 설득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간절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민주적인 진행을 위해서 추가 고민을 요청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이후 일정으로 인한 이석 필요성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의결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 총 1인이 반대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경영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기권*하여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위 기권은 표결 거부로 인한 기권임.)
--	---

간서명	신동희	이준엽	정예진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1월 27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준엽		위 원	이승연	
	위 원	강보아		위 원	이주연	
	위 원	백주현		위 원	이창온	
	위 원	서하연		위 원	장현수	
	위 원	신동희		위 원	정예진	
	위 원	오민서		위 원	최정아	
	위 원	윤정원				
작 성 자	예산팀 남 아 영					